

# 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7.27(목) -

## [1] 사람 중심의 사회라는 철학에 따른 교통정책

- 오늘 교통과 관련된 안건이 주로 상정됨
  - 어느 정부나 교통정책이란 것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만,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은 사람중심의 사회라는 철학에 따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하는데 중점을 둠

## [2] 안건 관련

### ① 서울-세종 고속도로

- 정부가 서울-세종 고속도로를 일부는 도로공사사업, 일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전 구간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완공시기도 앞당겨 좀 더 많은 국민들께 빨리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임. 서울-세종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중부권의 교통난이 완화되고 전국적으로도 그 편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
  - 일부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가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람.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람

## ② 사업용 차량 졸음 운전대책

- 그 동안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치 않아서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바로 엇그제의 일임
-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추돌방지장치를 부착, 특히 운수업종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업종으로 두지 않고 그분들께 쉬는 시간을 확보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음
- 이런 대책이 모두 비용이 들고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, 교통문화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임. 대한민국도 모든 부문에서 안전한 나라라는 위상을 확고히 세울 때임
- 이 문제 또한 국회나 민간의 협조를 잘 얻도록 관련부처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람